

갈라디아서 1:1-2:10의 한국어 번역 연구 -형식일치 번역을 지향할 때의 문제 구절들을 중심으로-

김충연*

1. 들어가는 말

예수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운동은 한 세대가 지난 후에도 사그라지지 않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점차 독립된 종교로 정착해 나갔다. 바울의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발전을 증거해 주는 가장 초기의 문서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와 어떠한 결별 수순을 밟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고통들과 투쟁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역사의 과정의 중심에 있었고, 때론 자신과 자신의 복음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복음에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제기하는 근본적인 의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역사적 문서이며, 또한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을 위한 체계적인 최초의 변증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갈라디아서 1:1-2:10은 바울이 자신이 개종시킨 자들이 그렇게 빨리 자신의 복음을 떠난 모습에 실망하여,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합법성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자신의 복음의 메시지의 타당성에 대하여 증언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의 성경 원문과 관련된 연구에서 다루어진 갈라디아서 연구는 다른 성서본문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자주 거론되는 특정 본문만을 다루어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친 그 밖의 크고 작은 번역상의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었으며 연구 범위에서 제외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서 기존의 신학적인 논의의 중심에 있는 본문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소홀히 취급받던 본문’들까지도 포함하여 갈라디아서 전체(1-6장)의 원문을 연구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인하여 먼저 그 출발점으로 편지의 서문부터 진술부의 시작부분인 1:1-2:10까지만 일차적으로 번역하고, 본격적인 진술부의 나머지 부분인 안디옥에서 일어

* 감리교신학대학교 외래교수, 신약학.

난 사건 이후의 일(2:11- 6:10)과 편지의 후기(6:11-18)는 다음의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먼저 원문을 문법적으로 연구하여 보고, 그 뒤에 한국 성서 번역본들과 외국어 성서 번역본들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려 한다.

여기서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 함은 그 단어나 문장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와 형식 등을 문법적으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굳이 ‘형식일치의 번역’인지, ‘내용동등성 번역 원칙’인지 둘 사이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면, ‘형식일치의 번역’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백퍼센트 ‘형식일치의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형식일치의 번역’만 갖고 번역을 할 경우 원문의 낱말을 ‘정확하게’ 옮겨 놓았어도 그 번역의 의미 전달 면에서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갈 1:2의 (;) 또는 ‘인사하노라’의 첨가문제 등).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수용언어인 한국어에 그 의미 전달이 심각하게 어려울 경우를 제외하곤 ‘형식일치의 번역’을 기본적으로 따를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어로의 의미 전달이나 문법적 특징이 다소 약화되고 불편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두는 바이다.

필자가 이러한 방법론을 택한 이유는 다소 한국어로의 의미 전달이 불편하더라도 저자인 바울이 사용한 단어의 원래의 의미와 문장의 문법적 형식, 문장 배열 등을 그리스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원문에 가깝게 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단어가 갖는 원래 의미는 무엇이며, 원문에 가까운 문장의 형식은 이러하다는 것을 제시해 주기 위함이다.

바라기는 본 연구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기존에 다루지 않은 갈라디아서의 원문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신학적 논의의 주제들이 논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본 연구를 위한 기본 텍스트로는 그리스어 신약성서 NTG²⁷로 할 것이며, 번역은 한국어 번역 성서는 『개역개정』, 『공동번역』 그리고 『새번역』 등과 외국어 번역본(독일어, 영어)들을 비교/참조하도록 하겠다.

2. 몸 말

2.1. 갈라디아서 1:1-5

먼저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편지의 서문(Präskript)인 1:1-5, 발단(Exordium) 부분인 1:6-10, 본격적인 진술부(Narratio)인 1:12-6:10, 그리고 편지의 후기(Postskript)인 6:11-18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1:1-2:10은 갈라디아서의 전체 구조 중에서 인사에 해당하는 서문과 본격적인 진술로 들어가기 위한 발단 부분 그리고 진술 부분의 일부이다.

갈라디아서 1:1-5는 전체 편지의 서문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구조적으로 살펴 보면, 1:1a에서는 발신인의 이름과 칭호가 언급되며 1:1b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라는 칭호에 대하여 변호한다. 그의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그리고 1:2a에서는 공동 발신인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2b에서는 수신인들을 지명하고 3-4절에서는 인사와 5절에서는 ‘아멘’으로 끝맺는 송영으로 전체 서신의 인사말을 매듭지고 있다.

그리스어 성경은 갈라디아서 1:1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Παῦλος ἀπόστολος οὐκ ἀπ’ ἀνθρώπων οὐδὲ δι’ ἀνθρώπου ἀλλὰ 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καὶ θεοῦ πατρὸς τοῦ ἐγείραντος αὐτὸν ἐκ νεκρῶν,

위 1절을 한국어 번역본들은 아래와 같이 번역하고 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개역개정』)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새번역』)

사도인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직을 사람에게서나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시다.(『공동번역』)

번역과 관련하여 1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어 ἐγείραντος이다. 이 단어의 원형은 ἐγείρω이며, 분사, 단순과거, 능동태, 2격(속격), 남성, 단수이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잠에서) 깨우다’, ‘(누워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다’ 그리고 특별히 죽음과 관련해서도 ‘(죽은 자를) 깨우다’, ‘일으키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¹⁾ 『개역개정』, 『새번역』, 그리고 『공동번역』은 모두 ‘살리다’라고 번역하고 있

1) W. Bauer,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8), 432.

는데, 원래 이 의미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ἀναζάω*나 *ζωοποιέω* 그리고 *ζάω*이다. 이러한 용례는 신약성서에서 누가복음 15:24, 32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ὅτι οὗτος ὁ υἱός μου νεκρὸς ἦν καὶ ἀνέζησεν, ἦν ἀπολωλὼς καὶ εὐρέθη. καὶ ἤρξαντο εὐφραίνεσθαι.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개역개정』 눅 15:24)

여기서 누가는 ‘다시 살린다’라는 표현으로 *ἀναζάω*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32절에서는 *ζάω*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ὑφραίνθηται δὲ καὶ χαρῆναι ἔδει, ὅτι ὁ ἀδελφός σου οὗτος νεκρὸς ἦν καὶ ἐζήσεν, καὶ ἀπολωλὼς καὶ εὐρέθη.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개역개정』 눅 15:32).

바울도 누가와는 조금 다르지만 로마서 4:17에서는 ‘죽음으로부터 살려낸다’는 표현으로 *ζωοποιέω*를 사용하고 있고 로마서 14:9에서는 *ζάω*를 사용하고 있다.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ὅτι πατέρα πολλῶν ἐθνῶν τέθεικά σε, κατέναντι οὐ ἐπίστευσεν θεοῦ τοῦ ζωοποιούντος τοὺς νεκροὺς καὶ καλοῦντος τὰ μὴ ὄντα ὡς ὄντα.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개역개정』 롬 4:17)

Εἰς τοῦτο γὰρ χριστὸς καὶ ἀπέθανεν καὶ ἐζήσεν, ἵνα καὶ νεκρῶν καὶ ζώντων κυριεύσῃ.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개역개정』 롬 14:9)

즉 바울은 뚜렷하게 ‘다시 살린다(ζωοποιέω)와 살았다(ζάω)’는 표현과 ‘깨운다’(ἐγείρω)는 표현을 확연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글 성서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구분하지 않고 둘 다 같은 의미(‘살리다’)로 번역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글 성서의 ('살리다'라는) 번역은 문맥상(Context)으로는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단어의 의미(Semantics)와 '당시의 문학적 표현 방식'으로 볼 때에는 적절하지 않은 번역이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잔다'(κοιμάω)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서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이며²⁾, 아마도 바울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 저자들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후 15:20). 그러므로 '죽은 자'(의미상 '잠자는 자')에 대한 표현에 반대 개념으로서의 적절한 말은 '살린다'는 표현보다는 '깨운다', '일으킨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이다.

이외에도 신약성서는 ἐγείρω를 통하여 예수가 '죽은 자를 깨운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마 11:5; 눅 7:14; 요 12:1, 9, 17) 보도하고 있으며, 그의 제자들 또한 죽은 자를 깨우는 능력을 그의 스승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보도한다(마 10:8). 또한 유대적인 하나님의 특징을 서술할 때도 '죽은 자를 깨우는' 모습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반복한다(고후 1:9; 요 5:21; 행 26:8).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깨운(또는 일으켜 세운) 것과 같이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로부터 깨어나 부활한 것과 같이,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도 깨어나서(고전 15:35, 52; 막 12:26; 요 5:21), 부활하게(막 12:25)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13에 따르면 죽은 자들과 하데스(음부)의 바다는 그들의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내어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바울은 ζωοποιέω와 ἐγείρω를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대답은 '그렇다'이다.

바울은 특별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하여서는 로마서 14:9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ἐγείρω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사람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표현할 때에는 ἐγείρω가 아닌 가급적 다른 표현들 예를 들면 ζωοποιέω(롬 4:17; 8:11) ἔξεγείρω(고전 6:14) 등을 사용하려 한다.

εἰ δὲ τὸ πνεῦμα τοῦ ἐγείραντος τὸν Ἰησοῦν ἐκ νεκρῶν οἰκεῖ ἐν ὑμῖν, ὁ ἐγείρας Χριστὸν ἐκ νεκρῶν ζωοποιήσει καὶ τὰ θνητὰ σώματα ὑμῶν διὰ τοῦ ἐνοικοῦντος αὐτοῦ πνεύματος ἐν ὑμῖν.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개역개정』 롬 8:11)

2) A. Oepke, *Tholog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II* (Stuttgart: W. Kohlhammer, 1935), 333.

ὁ δὲ θεὸς καὶ τὸν κύριον ἤγειρεν καὶ ἡμᾶς ἐξεγερεῖ διὰ τῆς δυνάμεως αὐτοῦ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개역개정』 고전 6:14)

이와 같이 바울은 예수의 죽은 자로부터의 살아나심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ἐγείρω를 사용하지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라는 표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의 ‘다시 살아남’에 대한 표현에는 다른 단어들을 따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아마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죽음과 일반인의 죽음을 구별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며, 예수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닌 일시적인 ‘잠자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그의 신학적 의도일 것이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깨워/일으킨’ 분이라는 표현은 매우 일반적인 표현이며(롬 4:24; 8:11; 10:9; 고전 6:14; 15:12, 13, 14, 16, 17, 20; 고후 4:14; 살전 1:10) 여기서 모두 바울은 예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분이 아니라(ζωοποιέω나 ζάω) ‘깨어난’(ἐγείρω) 분임을 표현한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관련하여서 사용된 단어가 ἀνάστασις인데 이 단어의 의미 또한 ‘일어나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³⁾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1의 ἐγείραντος는 문맥상의 번역인 ‘살리다’라는 번역보다는 본래의 단어의 의미에 문법적으로나 당시의 문학적 표현 그리고 바울의 신학적 표현에 적합한 ‘깨우다’ 또는 ‘일으키다’라고 번역하는 것이⁴⁾ 더 적합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다른 언어권에서의 번역도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영어권에서는 ἐγείραντος를 ‘일으키다’라는 의미의 ‘raised’(ASV, NASB, KJV, NJB, NRSV)를 사용하거나 일부 번역본에서 ‘돌아오다’라는 ‘come back’(BBE)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살다(live)는 표현은 영어 번역본 중에서는 어느 번역본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형태는 독일어권 번역에서도 동일한데 대표적인 번역본인 EIN, LUT, ELB 모두 ‘깨우다’ ‘눈 뜨게 하다’라는 의미의 Auferwecken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들은 모두 단순한 문맥상의 의미 전달만을 생각하여 번역한 것이

3) ἐγείρω가 ἀνάστασις와 같은 의미(일어서다)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우어(Bauer)의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8), 433과,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I* (Stuttgart: W. Kohlhammer, 1935), 369를 보라.

4) Kremmer, J., *Exeget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I* (Stuttgart; Berlin; Köln: Kohlhammer), 1992.

아니라, 단어의 의미와 당시의 문학적 표현을 충분히 고려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하여 볼 때 갈라디아서 1:1의 번역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요, 사람을 통하여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킨(또는 ‘깨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사도된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어 성서는 2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καὶ οἱ σὺν ἐμοὶ πάντες ἀδελφοὶ ταῖς ἐκκλησίαις τῆς Γαλατίας,

위 2절의 그리스어 문장에 대하여 『개역개정』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번역은 “σὺν ἐμοὶ”를 자칫 도외시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번역은 아마도 1절의 끝에 ‘바울은’이라는 말이 있기에 당연히 ‘생략’해도 독자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1절과 2절이 나뉘어 있기에 독자들은 이 두 절을 연결하여 읽기보다는 각기 떼어 독립적인 문장으로 읽는 경우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한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원문에 가깝기 때문에 “σὺν ἐμοὶ”에 해당하는 “나와 함께”를 넣어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참고로 『공동번역』, 『새번역』에서는 모두 “나와 함께”를 넣어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영어권 번역(KJV, NASB, NIV, NJB, NRSV)과 독일어권 번역(EIN, ELB, LUT) 역시 모두 “σὺν ἐμοὶ”를 넣어 번역하고 있다.

그러므로 2절의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2절과 덧붙여서 한글 번역 성서 중 『개역개정』에서는 ‘편지한다’는 표현을 따로 첨가하고 있지 않지만, 『새번역』에서는 이것을 넣어 보충하고 있고, 또 『공동번역』에서는 “문안드리며”를 넣어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바울의 이름으로 씌어진 서신들⁵⁾의 어디에서도 ‘편지한다’ 또는 ‘쓴다’라

5) 바울서신의 진위 문제를 떠나서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서신을 말함.

는 동사의 그리스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임의적인 첨가는 헬라어의 편지 양식에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개역개정』의 어느 서신에서는,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후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편지한다’라는 표현을 첨가하여 넣지만, 다른 서신들 즉,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등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첨가하지 않고 있다. 즉 이러한 번역들은 한 권의 성서에서 통일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일성의 결여는 읽는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이 본문을 그리스어 원문에 가깝게 읽어 보려면 외국 번역 성서(영어, 독어) 번역본에서처럼 모두 쌍반점(:)으로 대신하거나, 굳이 넣어서 번역하고자 한다면 야고보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인사하노라’에 해당하는 *χαίρειν* (야 1:1)을 넣어서 번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스어 성서에서 바울은 4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τοῦ δόντος ἑαυτὸν ὑπὲρ τῶν ἁμαρτιῶν ἡμῶν, ὅπως ἐξέλθῃται ἡμᾶς ἐκ τοῦ αἰῶνος τοῦ ἐνεστώτος ποιηροῦ κατὰ τὸ θέλημα τοῦ θεοῦ καὶ πατρὸς ἡμῶν,

4절에서 『개역개정』과 『공동번역』은 각각 “그리스도께서”를 그리고 『새번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보충하고 있는데, 이것은 3절에서 이미 등장한 “주 예수 그리스도”(κυρ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에 대한 중복의 번역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복의 번역을 피하기 위해서 『개역개정』과 『새번역』의 “그리스도께서”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관계 대명사, 3인칭 단수인 ‘그는’이라는 말을 넣어 번역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번역일 것이다. 실제로 영어 성서(KJV, NASB, NIV, NJB, NRSV)나 독일어 성서(LUT, EIN, ELB)에서도 관계대명사(who와 der)로 번역하고 있다.

그밖에도 ἑαυτόν을 『개역개정』과 『새번역』 모두 “자기 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자기 자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ἑαυτόν은 명백하게 재귀대명사이기 때문이다. “자기 몸”이라는 번역은 이렇게 문법적으로 원문(재귀대명사)에 가까운 번역이라 할 수 없고, 의미적으로도 자칫 예수의 ‘육신/몸’과 관련하여서 이해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몸’이라는 개념어를 따로 첨가하지 않으면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번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공동번역』은 이것을 “자신”으로 번역하고 있다.

3절과 5절에 원문에는 εἴη이나 ἔστιν이 없지만 키틀(G. Kittel)에 의하면 영광송(Doxologien)에서는 보충하여 번역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더 타당하다.⁶⁾ 『개

역개정』과 『새번역』 그리고 외국어 번역본들(ELO, LUT, EIN, ESV, ASV)도 “있다”를 보충하여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1-5절까지의 번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람으로부터가 아니요, 사람을 통하여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킨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사도된 바울이
2.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3. 너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4. 그는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현재의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기 위함이다.
5. 그에게 영원의 영원까지 영광이 있기를! 아멘.

2.2. 갈라디아서 1:6-11

6절부터 11절은 갈라디아서 전체 서신 중에서 머리말(Exordium)에 해당된다.⁷⁾ 6-7절에서 바울은 왜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진술하고 8-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두 차례의 저주를 한다. 10-11절에서는 편지의 다음 단계인 해설(Narratio)로의 수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진다.

바울은 6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에서 떠나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ἕτερον εὐαγγέλιον)으로 돌아서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음을 진술하고 7절에서는 그들이 따르는 “다른”(ἄλλο)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여기서 ἕτερον εὐαγγέλιον과 ἄλλο는 하나의 동질성에 관한 두 개의 다른 표현이며 ἄλλο가 ἕτερον εὐαγγέλιον의 대안적 표현이기에 different의 의미보다는 another(ἄλλο)의 의미로서 ‘다른’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⁸⁾

그리스어 성서는 7절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ὁ οὐκ ἔστιν ἄλλο, εἰ μὴ τινές εἰσιν οἱ παράσσοντες ὑμᾶς καὶ θέλοντες μεταστρέψαι τὸ εὐαγγέλιον τοῦ Χριστοῦ.

6) δόξα v. Rad/ G. Kittel in: ThWb II, 251

7) 갈라디아서의 구조(Composition)에 대해서는 H. D. 벡츠, 『갈라디아서』, 한국신학연구소 번역 실역, 국제성서주석 37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130 이하를 보라.

8) H. Schlier, *Der Brief an die Galat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 55.

한글 성서 번역본들은 7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개역개정』)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공동번역』)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새번역』)

위의 한글 번역본들의 번역은 사실 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위의 번역들은 그리스어 문장의 구조를 배려하지 않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원래의 그리스어 문장 구조를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올 것 같다.

그리스어 문장의 구조는 쉼표(,)를 중심으로 ὃ 이하의 문장과 εἰ 이하의 문장으로 나뉘며 이 두 문장에서 각각 εἰμί가 본 동사의 역할을 한다. 물론 여기서 εἰμί는 “~이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존재한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먼저 ὃ 이하의 문장을 οὐκ와 함께 직역하면, ‘다른 것(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된다. 중성 관계대명사인 ὃ는 εὐαγγέλιον 하나만을 선행사로 두지 않고 ἕτερον εὐαγγέλιον을 선행사로 둔다.⁹⁾ 그리고 εἰ 이하의 문장 역시 εἰμί와 함께 “~은 존재한다”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역개정』을 비롯한 한글 번역성서들은 εἰ 이하의 문장에서 본동사가 ‘있다’, ‘존재하다’(εἰμί)가 아니라 ‘교란하다’(ταράσσοντες)와 ‘변하게 하다’(μεταστρέψαι)가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리스어 문장을 보면 두 분사 즉 οἱ ταραύσσοντες와 θέλοντες가 존재한다. 한글 번역 성서 번역본들은 모두 이 분사를 술어적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이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단지 그리스어 문장의 구조 즉 ‘~이 없고, ~이 있다’는 것을 살려서 번역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술어적 번역보다는 명사적 번역이 더욱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다. 즉 οἱ ταραύσσοντες는 ‘교란하는 자들’로 그리고 θέλοντες는 문법상¹⁰⁾ 부정사 μεταστρέψαι와 함께 ‘변질시키려는 자들’로 옮겨야 한다. 여기에 각각 목적어를 삽입하여 번역하면 각각 ‘너희들을 교란하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자들’이 된다. 다른 영어권의 번역(ASV, BBE, CSB, KJV, NASB,

9) F. Musser, *Der Galaterbrief* (Freiburg; Basel; Wien: Herder, 1974), 56.

10) 의지를 나타내는 θέλω는 단어의 특성상(영어의 조동사처럼) 종종 부정사와 연결하여 해석해야 한다.

NJB, NRSV)이나 독일어권(EIN, ELB, LUT)의 번역 역시 분사를 명사적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7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것은 없나니, 단지 너희들을 교란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번
질시키려는 자들만이 있다.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저주를 선
언하는데, 그리스어 성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8 ἀλλὰ καὶ ἐὰν ἡμεῖς ἢ ἄγγελος ἐξ οὐρανοῦ εὐαγγελίζηται [ὑμῖν] παρ' ὃ
εὐηγγελισάμεθα ὑμῖν, ἀνάθεμα ἔστω.

9 ὡς προειρήκαμεν καὶ ἄρτι πάλιν λέγω· εἴ τις ὑμᾶς εὐαγγελίζεται παρ'
ὃ παρελάβετε, ἀνάθεμα ἔστω.

우리가 8절과 9절에서 살펴보아야 할 번역상의 문제는 παρ' ὃ
εὐηγγελισάμεθα(8절)와 παρ' ὃ παρελάβετε(9절)이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모두 이것을 “다른 복음”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공동번역』은 “다른 것”으로 옮
기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다른 복음”)을 이미 6절에서 ἕτερον εὐαγγέλιον으로 정
확하게 사용하고 있다. 8절의 παρ' ὃ εὐηγγελισάμεθα은 전치사 παρά와 관계대명
사절 ὃ εὐηγγελισάμεθα ὑμῖν과 ὃ παρελάβετε로 구성된 문장이다. 여기서 이 문장
은 전치사 παρά의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번역된다.

데부룬너(A. Debrunner)는 παρά의 용례를 설명하면서 갈라디아서 1:8, 9에서
παρά는 비교급과 함께, 때로는 비교급 없이도 “~과 다른” 또는 “~보다 많이”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¹¹⁾

한글 성서는 『개역개정』과 『새번역』처럼 데부룬너의 제안대로 “~과 다른”으
로 해석하여 “다른 복음”이라고 번역하거나, 『공동번역』처럼 “다른”으로 번역하
고 있다.

그러나 바우어(W. Bauer)는 παρ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용례가 있
지만 갈라디아서 1:8, 9의 παρά는 상반의 접속사(adversative)처럼 번역해야 한다
고 제안한다. 즉 로마서 16:17의 παρά τὴν διδαχὴν(교훈을 거슬러서)처럼¹²⁾ ‘대

11) 더 자세한 내용은, F. Blass, A. Debrunner, and F. Rehkopf, *Grammatik zum Neuen Testamen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189 이하 참조.

12) 바우어는 다른 용례로 사도행전 18:13도 들고 있다.

적하는’, 또는 ‘반대하는’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¹³⁾ 전치사 παρά에 이러한 상반의 접속사와 같은 역할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데부룬너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예로 사용된 경우로서는 사도행전 18:13; 로마서 1:26; 11:24b; 고린도후서 8:3 등이다.¹⁴⁾

이처럼 전치사 παρ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8절의 내용은 조금 달라지게 된다. 즉 데부룬너의 주장을 따르면 ‘다른 복음’이 될 것이며, 바우어의 주장을 따르면 ‘…에 반대하는’이 될 것이다. 영어나 독일어권 성서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KJV, NAB, ASV 등의 번역들이 데부룬너의 주장대로 ‘다른 복음’으로 그리고 ESV, CJB 등이 바우어의 제안을 따라 ‘반대하는’으로 번역하고 있다. 독일어권 성서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져서 LUT, EIN는 데부룬너의 주장을 따르고 있으며, ELB는 바우어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갈라디아서 주석가들의 번역을 살펴보면, 슈리어(H. Schlier)¹⁵⁾는 παρά를 ‘대신에’로 옮기고 있으며, 박익수¹⁶⁾는 ‘다른’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외프케(A. Oepke)¹⁷⁾, 무스너(F. Mussner)¹⁸⁾ 그리고 뤼어만(D. Lühermann)¹⁹⁾ 등은 각각 ‘대항하여’, ‘반대하는’ 그리고 ‘반대하여’로 번역하고 있다.

어느 번역이 더 옳은지 문법적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정황상으로 볼 때 바울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παρ’ ὃ εὐγγελισάμεθα ὑμῖν) 그의 대적자들이 전한 것은 ‘다른 복음’(ἕτερον εὐαγγέλιον)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전치사 παρά는 여러 파피루스 사본에서 자주 ‘반대하는’, ‘~에 대항하는’으로 사용되었기에²⁰⁾ 그리고 지금 바울이 저주하는 대상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위배되는 적대자들임을 감안하여 볼 때, 8절과 9절에서는 ‘반대하는’ 또는 ‘위배/적대하는’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 듯하다.

또한 11절의 κατὰ ἄνθρωπον은 용법상 번역의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의 방식에 의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겠다.²¹⁾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하여 8-11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3) W. Bauer,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1236.

14) F. Blass, W. Debrunner, F. Rehkopf, *Grammatik zum Neuen Testamen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189 이하 참조.

15) H. Schlier, *Der Brief an die Galat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 36.

16) 박익수, 『바울의 서신들과 신학 I』(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78.

17) A. Oepke, *Der Brief des Paulus an die Galater*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57), 47.

18) F. Musser, *Der Galaterbrief* (Freiburg; Basel; Wien: Herder, 1974), 53.

19) D. Lühermann, *Der Brief an die Galater* (Zuerich: Theologischer Verlag, 1978), 18.

20) 롬 1:25; 행 18:13.

21) W. Bauer,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826.

8 그러나 만약 우리나라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위배되는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던 것처럼, 이제 다시 말하노니 만약 누군가 너희가 받은 것과 위배되는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10 내가 이제 그렇다면 사람을 설득하라 하나님을 설득하라? 또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을 구하라? 만약 내가 여전히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을 구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1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형제들아, 나에게 의해서 전파되는 복음은 사람의 방식대로 된 것이 아니니라.

2.3. 갈라디아서 1:12-2:10

갈라디아서 1:12-2:10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볼 때 진술부(Narratio)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11-23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사도로서 소명 받은 것을 설명하고(11-16절), 예루살렘의 사도로부터 바울의 독립적인 위치에 대한 강조가 이어진다(1:17-23). 그리고 2:1-10은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과 관련된 것으로서, 바울은 여기서 예루살렘의 권위자들과의 만남에 대하여 언급한다. (지면의 제한으로 다루지 못한 2:10 이후의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다.)

2.3.1. 갈라디아서 1:12-24

갈라디아서 1:12-24는 한글 성서 번역본이 그리스어 성서와 의미상으로 볼 때 번역상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칫 소홀히 다루기 쉬운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14절이다:

14 χαίρεινκαὶ προέκοπτον ἐν τῷ Ἰουδαϊσμῷ ὑπὲρ πολλοὺς συναηλικιώτας ἐν τῷ γένει μου, περισσοτέρως ζηλωτῆς ὑπάρχων τῶν πατρικῶν μου παραδόσεων.

14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동사 προέκοπτον이다. 이 단어의 원형은 προκόπτω이며 뜻은 ‘더 나아가다, 진보하다, 발전하다, 향상되다’의 뜻을 갖고 있다. 같은 의미로는 신약성서에서 디모데후서 2:16; 3:9, 13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글 번역본 중 『새번역』은 ‘앞서 있었으며’ 그리고 『공동번역』은 ‘앞

장 섰으며’로 원래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은 ‘지나치게 믿어’로 번역하고 있어 수정이 요구된다.

다른 외국어 번역본들도 이 단어를 ‘앞서 있었다’는 의미와 관련하여 각각 *advancing*(ASV, NAS), *Fortschritte machen*(ELB)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 번역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4 그리고 나는 나의 동족 중에서 많은 동년배들보다 유대교에 앞서 있었고, 나의 조상의 전통을 위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또한 16절을 그리스어 성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6 ἀποκαλύψαι τὸν υἱὸν αὐτοῦ ἐν ἐμοί, ἵνα εὐαγγελίζωμαι αὐτὸν ἐν τοῖς ἔθνεσιν, εὐθέως οὐ προσανεθέμην σαρκὶ καὶ αἵματι ἀποκαλύψαι τὸν υἱὸν αὐτοῦ ἐν ἐμοί, ἵνα εὐαγγελίζωμαι αὐτὸν ἐν τοῖς ἔθνεσιν, εὐθέως οὐ προσανεθέμην σαρκὶ καὶ αἵματι

16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ἐν ἐμοί의 번역인데, 즉 이것을 ‘에게’로 번역해야 할지 아니면 ‘안에’(in)로 번역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를 일부 영문 번역(ESV)과 D. Lührmann는 ‘에게’로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에게’보다는 ‘안에’가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신약성서에서 ‘계시’ ἀποκαλύπτειν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전치사 ἐν을 이곳 외에서는 함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비교. 고전 2:10; 엡 3:5; 뱀전 1:12). 당연히 그곳에서는 ‘에게’라고 번역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여기에서 전치사 ἐν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에게’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용적으로도 바울은 여기서 ἐν ἐμοί를 통해서 아들의 드러남이 바울의 내면 중심에 깊게 각인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²²⁾ 실제로 많은 영어 및 독일어 번역본(ASV, NAS, NIV, LUT 등)들이 전치사를 충분히 살려서 ‘내 안에’(in me)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 번역한다면 뒤의 번역 제안과 같이 될 것이다.

또한 σαρκὶ καὶ αἵματι는 여기서 특정한 누구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사람, 특별히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혈육’이라 옮기면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모나 자식 또는 친척을 의미할 수 있기에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려는 ‘형식일치의 번역’에 따라서 ‘혈육’이라고 번역하도록 하겠다.

17절의 πάλιν은 여기서 동의어의 반복적인 의미나 이야기를 설명하는 과정이

22) 비교. H. Schlier, *Der Brief an die Galater*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 55.

나 순서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의 되풀이를 설명하는 것이다.²³⁾ 바울의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바울이 그의 회심 이후에 다메섹에 첫 번째 머문 것을 알고 있었으며, 바울은 지금 두 번째로 다메섹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라는 말이 분명히 오역은 아니지만 혼용의 가능성이 있고, 의미상 바울의 두 번째 다메섹 방문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재차’ 또는 ‘또 다시’로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개역개정』과 『공동번역』은 *πάλιν*을 ‘다시’로 번역하고 있으나, 『새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생략한 채로 번역하고 있다.

18절의 *Ἐπειτα μετὰ ἔτη τρία*는 학자들 사이에서 언제부터 ‘3년 후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즉 회심 이후 3년인지, 아니면 두 번째 다메섹에서의 거주 이후에 3년인지. 이야기/설명(Narratio)의 순서상으로 보면 *Ἐπειτα*는 첫 부분의 두 번째 시기의 시작을 가리키므로 두 번째 다메섹에서의 거주 이후에 3년인 것이 확실하지만(참조. 1:21; 2:1) 그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모두 “삼년 후에”와 “삼년 뒤에”로 그리고 『개역개정』은 “그 후 삼년만에”로 옮기고 있다.

19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 중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작은 부분이지만 *ἕτερον δὲ τῶν ἀποστόλων*의 번역을 『공동번역』과 『개역개정』은 “다른 사도들을”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새번역』은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라고 옮기고 있다. 『공동번역』과 『개역개정』의 번역은 마치 헬라이어의 *ἑτέρους ἀποστόλους*을 옮긴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며 『새번역』의 번역은 마치 다른 사본인 *εἶδον οὐδένα τῶν ἀποστόλων*을 옮긴 것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한다. 그러므로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ἕτερον*의 의미를 살려서 ‘사도들 중에 다른 이를’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진술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님을 강조한다. 여기서 명령법으로 쓰여 있는 *ἰδοὺ*를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옮기지 않고 있다.

『개역개정』은 번역은 하고 있지만, 문장의 앞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ἰδοὺ* 뒤의 문장. 즉 *ἐνώπιον τοῦ θεοῦ*이다. *ἐνώπιον τοῦ θεοῦ*은 하나님 자신을 증인으로 요청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서약형식’(Schwurformel)이다.²⁴⁾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ἰδοὺ*를 *ἐνώπιον τοῦ θεοῦ*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의 의미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ἰδοὺ*의 문장 위치를 염두하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22절을 『개역개정』, 『공동번역』 그리고 『새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

23) 비교. F. Blass, W. Debrunner, F. Rehkopf, *Grammatik zum Neuen Testamen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484.

24) 비교. 딤후 5:21; 6:13, 딤후 2:14; 4:1.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개역개정』)

그래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나를 직접 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공동번역』)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니다.(『새번역』)

22절에서 바울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음을 증언하는데 이 문장에서 살펴볼 것은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개역개정』과 『공동번역』은 문장의 주어를 ‘교회’로 보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에서 동사(ἡμην)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주어는 1인칭 단수 즉 바울이다. 그리고 ταῖς ἐκκλησίαις는 복수 3격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교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23절에서는 시간을 알려주는 부사 ποτε이다. 이 단어는 23절에서 두 번 반복하여 사용된다. ὅτι ὁ διώκων ἡμᾶς ποτε νῦν εὐαγγελίζεται τὴν πίστιν ἣν ποτε ἐπόρθει, 『새번역』을 제외한 『개역개정』과 『공동번역』은 이 부사를 단지 한 번 옮기고 있을 뿐이다. 즉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개역개정』), “다만 전에 자기네를 박해하고 그 교를 없애 버리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교를 전파하고 있다는…”(『공동번역』). 그러나 원문의 의미나 문법을 더욱 살려 번역한다고 하려면 ‘전에 박해하던 그 사람이’, ‘전에 없애버리려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고 옮겨야 할 것이다. 물론, ποτε를 한 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개역개정』과 『공동번역』) 바울의 과거의 행적을 잘 설명할 수는 있지만,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한다고 한다면 두 번 모두 사용하여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2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13 너희들은 내가 과거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 나의 행동에 대하여 들었다. 즉 그 일은 내가 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을 멸하려고 했던 일이다.

14 그리고 나는 나의 동족 중에서 많은 동년배들보다 유대교에 앞서 있었고, 나의 조상의 전통을 위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15 그러나 나를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를 통하여 부르신 이[하나님]가

16 내 안에서 그의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은 그를 이방에 전하기 위함이며, 그때에 나는 즉시로 혈육에게 충고를 구하지 않았다.

17 나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으며 그리고 다시금 다메섹으로 되돌아갔다.

18 그 후 삼 년 뒤에 게바를 방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그와 15일을 머물렀다.

19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사도들 중에서 다른 이는 만나지 않았다.

20 내가 너희들에게 쓴 것은, 보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다.

21 그 후에 나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22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 얼굴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23 그들은 단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전에 그가 파괴하려던 믿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들었으며,

24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3.2. 갈라디아서 2:1-10

바울이 1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통해 그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했다면, 2장에서는 그의 두 번째 방문을 언급하며 자신이 예루살렘의 사도들보다 결코 열등하지도, 그들에게 종속되지도 않은 사도임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들과 동등됨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갈라디아서 2:1-10에서 바울은 자신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언급하는데, 여기서 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방 선교는 초대 공동체의 지도자들로부터 조건 없이 수용되었음을 설명한다.

먼저 그리스어 성서에는 1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Ἐπειτα διὰ δεκατεσσάρων ἑτῶν πάλιν ἀνέβην εἰς Ἱεροσόλυμα μετὰ Βαρναβᾶ συμπαραλαβὼν καὶ Τίτον·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Ἐπειτα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단어를 생략한 채 “십사 년 후에”(διὰ δεκατεσσάρων)만 번역하고 있으며,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각각 ‘그리고 십사 년 뒤에’ 그리고 ‘그 다음에 십사 년이 지나서’로 옮기고 있다.

Ἐπειτα는 전체 신약성서에서 15번²⁵⁾ 등장하는데 이 중 바울 서신에서 9번이나 사용되고 있다. 즉 바울이 특별하게 선호하는 표현 중 한 가지인 것이다. 갈라

25) 눅 16:7; 요 11:7; 고전 12:28; 15:6, 7, 23, 46; 갈 1:18, 21; 2:1; 살전 4:17; 히 7:2, 27; 약 3:17; 4:14.

디아서에서도 1장에서 이미 두 번이나(1:18, 21) 사용된다.

그리스 단어 Ἐπειτα는 ‘부사’로 사용되며 그 의미는 ‘그리고 나서’ 또는 ‘그 이후’이다. 사실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에 이 단어를 생략한 채 번역하여도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그러나 이 단어는 외프케(A. Oepke)가 설명하는 것처럼 바울이 “시간적이고 논리적인 행동을” 논증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²⁶⁾ 바울은 지금 긴 시간적인 공백을 뛰어넘고 있다. 사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의 진술은 고대 산술 방법에 따라(비교. 갈 1:18) 12-13년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개역개정』은 Ἐπειτα를 생략한 채, διὰ δεκατεσσάρων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언제부터 ‘십사 년’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Ἐπειτα(그리고 나서)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언제부터’ 십사 년인지에 대하여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이후라고 생각한다.²⁷⁾), 바울은 여기서 이 단어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시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마가복음 2:1(며칠 후: δι’ ἡμερῶν)이나 사도행전 24:17(몇 해 후: δι’ ἐτῶν)에서처럼 Ἐπειτα 없이 번역하는 용례들과 문학적/언어적인 구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반영하듯 영어 성서 번역(ASV, BBE, CJV, KJV)이나 독일어 성서 번역본(ELB, LUT)도 ~후에(διὰ) 외에 별도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에 맞는 단어로 Ἐπειτα를 번역하고 있다. 덧붙여서 καί는 여기서 ‘그리고’로 옮기는 것 보다는 ‘역시’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더 적절하다고 하겠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1절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나서 십사 년 후에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 역시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에 대한 근거(κατὰ ἀποκάλυψιν)와 거기에서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지도자들(αὐτοῖς)에게 설명한다. 여기서 κατὰ ἀποκάλυψιν의 번역은 ‘...에 따라서’, ‘...근거하여’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ἀποκάλυψιν는 여기서 ‘하나의 신적인 지시’이다. 이러한 ‘계시’는 중

26) A. Oepke, *Der Brief des Paulus an die Galater*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57), 47.

27) 비교. F. Mussler, *Der Galaterbrief* (Herder: Freiburg; Basel; Wien, 1974), 59.

종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28; 21:4, 10 이하의 내용들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앞서 1:12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보여진 계시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계시의 과정 속에서 주체가 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이다(15절).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보여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2절에서 말하고자 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다: ‘나에 의하여 선포되는 복음(11절)은 어떤 이차적인 중개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기에 ‘인간적인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신적인 근원과 신적인 방법’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고 아무 것도 뛰어 넘을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이 1:12와 2:2에서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형식면에서는(둘 다 ‘신적인 지시’라는) 같지만, 그 내용은(“예수 그리스도”, 1:12/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2:2)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 아님을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위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αὐτοῖς*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 특별히 사도들이다. 여기서 인칭대명사를 사용한 것은 바울이 아마도 17절과 19절에서 그들의 존재를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일 것이다(“ἀποστόλους”, 17절/ “ἀποστόλων”, 19절).

위의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2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설명하였고, 명망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나의 달음질 하는 것이나, 달음질 했던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함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디도가 할례와 관련하여 벌어진 사건을 서술하는데 거짓 형제들(갈 2:4-5)은 디도가 할례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었지만,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강요하지도 않았었고, 바울 또한 거부했었다. 바울에게는 할례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시험적인 사례의 결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할례 받지 않고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3절을 그리스어 성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ἀλλ' οὐδὲ τίς τις ὁ σὺν ἐμοί, Ἕλληνας ὄν, ἠναγκάσθη περιτεμηθῆναι.

이것을 『개역개정』, 『새번역』 그리고 『공동번역』은 다음과 같이 각각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 하였으니(『개역개정』)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새번역』)

나와 동행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는데도 그들은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공동번역』)

3절의 번역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태’(態)의 문제이다. 바울은 여기서 ἡναγκάσθη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동사 ἀναγκάζω(강요하다, 압력을 가하다)로서 직설법, 단순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역개정』, 『공동번역』은 ἡναγκάσθη를 능동태로 번역하고 있는데(~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개역개정』은 주어가 생략된 채 전체적인 문장이 능동으로 번역되고 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마치 바울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공동번역』은 능동으로 번역하면서 그 주어로 “그들”을 추가로 넣어 번역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러한 번역들은 모두 원문의 형식을 잘 살리지 못한 번역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리스어 원문대로 즉 ‘수동형’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즉 주어는 “(나와 함께 있었던) 디도”이며 그가 할례를 요구 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은 『새번역』과 영어 성서 번역 KJV, NASB, NIV, NJB, NRSV이며, 독일어 성서 번역은 ELB, EIN, LUT이다. 이 부분을 번역하자면, “디도는 할례 받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았다”가 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서 3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었던 디도는, 비록 그가 헬라인이기는 하였지만, 할례 받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았다

이어서 4-9절까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이다.

먼저 6절은 번역함에 있어 문장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어 단어에 적합한 한글 단어로 옮기는 것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

먼저 그리스어 성서는 6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Από δὲ τῶν δοκούντων εἶναι τι,- ὅποιοί ποτε ἦσαν οὐδέν μοι διαφέρει·
 πρόσωπον [ὁ] θεὸς ἀνθρώπου οὐ λαμβάνει- ἐμοὶ γὰρ οἱ δοκούντες οὐδὲν
 προσαιέθειτο,

여기서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어 단어인 δοκούντες의 어려움이다. 굳이 한국어로 직역하면 ‘~로 보이는 사람’이다. 어떠한 사람인지는 뒤에 부정사와 연결해서 알 수 있다. 뒤 따르는 부정사는 εἶναι τι이다. 즉 번역하면 ‘어떤 것이 되다’이다. 이 둘을 연결하면 ‘어떤 것이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δοκούντων εἶναι τι는 하나의 관용어이다.²⁸⁾ 바울은 9절에서 다시금 이 형식을 사용한다: οἱ δοκούντες στῦλοι εἶναι(9절: 기둥처럼 보이는)

바울은 6절에서는 사실 그들이 어떠한 존재(εἶναι τι)인지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단지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뭔가 있어 보이는’ 그리고 ‘뭔가 되 보이는 사람들’일 뿐이다.²⁹⁾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무엇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δοκούντων εἶναι τι)은 분명 ‘유력한 자’(『개역개정』)일 것이며, “유명한 자”(『새번역』)일 것이다. 그리고 『공동번역』이 번역한 것처럼 분명 “지도자”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어 단어의 의미인 “~처럼 보이는”(δοκούντες)의 의미를 배제한 번역이기에 원문을 살려서 “유력하게 보이는” 또는 “명예 있게 보이는”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해 본다.

이 부분을 번역하면 “명망 있게 보이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2격 지배 전치사 Ἀπὸ와 결합하여 “명망 있게 보이는 자들로부터”가 된다.

두 번째로 볼 것은 6절 하반절인 ἐμοὶ γὰρ οἱ δοκούντες οὐδὲν προσαιέθειτο,의 번역이다. 한글 번역본들은 그리스어 원문에는 없는 단어를 각기 첨가하여 번역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개역개정』에는 ‘의무’라는 말을 또 『새번역』에는 ‘제안’이라는 말로 『공동번역』은 “새로운 제안”을 첨가하고 있다.

그리스 성서에 없는 말을 넣어서 번역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측면에서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가능한 이런 부가적인 첨가를 하지 않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또한 번역본마다 임의적으로 추가한 단어들 즉 ‘의무’(『개역개정』)와 ‘제안’(『새번역』, 『공동번역』)이라는 말의 뜻도 차이가 있다. ‘의무’가 ‘~을 해야 하는 것’으로 다소 ‘강제적’이라고 한다면, ‘제안’은 ‘의무’보다는 덜 강제적이며 ‘선

28) A. Oepke, *Der Brief des Paulus an die Galater*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57), 77.

29) 바울은 후에 9절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즉 이들은 “기둥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은 그리스어 단어 προσανατίθημι에 기인한 듯하다. 이 단어를 바울은 1:16에서도 사용한 적이 있다. 거기서는 '조언/충고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우어의 설명처럼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다른 의미인 '제시하다, 제출하다'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 적합하다.³⁰⁾

이것을 복합부정어이고, 중성이며, 뜻은 '어떤 것/아무것도 ... 아니다'인 οὐδέν과 결합하여 '그 명망 있어 보이는 자들(οἱ δοκοῦντες)은 나에게(바울) 어떤 것(οὐδέν)도 제시하지(προσανατίθεμαι) 않았다'로 번역할 수 있다. 영어 성서(KJV, NASB, NIV, NJB, NRSV)와 독일어 성서(ELB, EIN, LUT)도 이와 같이 οὐδέν을 '아무 것 ~ 아니다', 또는 '어떠한 것도 ~ 아니다'(영: nothing, 독: nichts)로 번역하고 있다. 또한 "명망 있어 보이는 자들로부터"(Ἀπὸ δὲ τῶν δοκούντων εἶναί τι)는 그 자체로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다. 바울은 이 말 뒤에 잠깐 쉬고(,), 이어서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나에게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지 않으신다")을 한 뒤에 다시 원래 하려던 말을 잇는다. 바울이 원래 이 문장(Ἀπὸ δὲ τῶν δοκούντων εἶναί τι) 뒤에 이야기 하려던 것은 아마도 『새번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나는 아무런 제안도 받지 않았습니다"일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 '명망 있어 보이는 자들'에 대한 부연 설명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부연 설명 뒤에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하려던 말을 하는 것이다: ἐμοὶ γὰρ οἱ δοκοῦντες οὐδέν προσανέθεντο.(그 명망 있어 보이는 자들은 나에게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원문에 가깝게 즉 형식일치의 번역에 따라 번역한다면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명망 있어 보이는 자들로부터, —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나에게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지 않으신다 — 그 명망 있어 보이는 자들은 나에게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번역은 한국어 번역으로는 의미전달에 있어서나 문법적으로 불완전하기에 이미 『개역개정』에서 사용하는 번역의 용례처럼³¹⁾ 이 부분을 작은 글씨로 보충해 넣을 것을 제안해 본다.

이상을 종합하면 6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30) W. Bauer,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 1425.

31) 『개역개정』에서는 원문에는 없지만 내포적인 의미를 밝히는 번역 기술의 한 예로서 원문에 없는 부분을 번역할 때 그 부분을 '작은 글씨'로 기록하고 있다.

명망 있어 보이는 자들로부터 나는 어떠한 것도 제시받지 않았다 —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 그 명망 있어 보이는 자들은 나에게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7-9절까지의 문장 구조이다. 이 문장은 매우 복잡하다. 주 문장은 9절의 Ἰάκωβος καὶ Κηφᾶς καὶ Ἰωάννης, … δεξιὰς ἔδωκαν … κοινωνίας,이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분사구문(ιδόντες … καὶ γνόντες …) 앞서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삽입문으로서 8절(ὁ γὰρ … εἰς τὰ ἔθνη)이 새롭게 등장한다. 분사구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시간의 부사절(~할 때)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이 문장을 구조를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이 …을 보았을 때 … 그리고 …을 알았을 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연합의 악수를 하였다. …” 그리고 이 사이에 삽입문으로서 8절을 번역하면, “왜냐하면 … 베드로에게 할례자들의 사도직으로 … 나를 … 하였기 때문이다”가 된다.

7-9절까지의 그리스어 성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ἀλλὰ τοῦναντίον ἰδόντες ὅτι πεπίστευμαι τὸ εὐαγγέλιον τῆς ἀκροβυστίας καθὼς Πέτρος τῆς περιτομῆς,

8 ὁ γὰρ ἐνεργήσας Πέτρῳ εἰς ἀποστολὴν τῆς περιτομῆς ἐνήργησεν καὶ ἐμοὶ εἰς τὰ ἔθνη,

9 καὶ γνόντες τὴν χάριν τὴν δοθεισάν μοι, Ἰάκωβος καὶ Κηφᾶς καὶ Ἰωάννης, οἱ δοκοῦντες στῦλοι εἶναι, δεξιὰς ἔδωκαν ἐμοὶ καὶ Βαρναβᾶ κοινωνίας, ἵνα ἡμεῖς εἰς τὰ ἔθνη, αὐτοὶ δὲ εἰς τὴν περιτομὴν·

한글 성서 번역본만을 보아서는 위의 그리스어 문장 구조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8절이 삽입구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른 외국어 번역본들(ELB, LUT, ASV, ESV, KJV, NAS)처럼 괄호 등의 표기를 하는 것도 문장 이해를 돕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또한 한글 성서 번역본들은 두 분사 구문(ιδόντες … καὶ γνόντες …)을 시간의 부사절로 번역하지 않고 모두 서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8절도 7절과 무리하게 연결하여 ‘그리고’(『개역개정』)로 번역하지만, 8절의 접속사 γὰρ는 ‘그러므로’로 번역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ASV, BBE, KJV, NASB, NIV, NJB, NRSV, CSB 등)과 독일어 번역(EIN, ELB, LUT)도 접속사 γὰρ를 이유를 나타내는 for와 denn으로 번역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울은 7절에서 자신의 복음 전파의 타당성과 사도적 권위를 베드로와의 역할 분담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며, 이어서 8절에서는 자신의 그러한 사도성의 이유/근거를 제시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번역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표현은 δεξιὰς ἔδωκαν ἐμοὶ καὶ Βαρναβᾶ κοινωνίας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계약이나 협정의 마지막 시간에는 오른손을 주었다.³²⁾ 그러므로 δεξιὰς는 바로 “계약, 협정, 동맹, 연합”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κοινωνίας는 아마도 “거짓 형제”들에 대한 바울과 위 세 사람 사이의 공동의 ‘유대감’을 표현하는 것이리라. 그러므로 δεξιὰς … κοινωνίας는 ‘친교의 악수’(『개역개정』)라는 표현에는 단순히 교제의 악수만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그룹 사이의 ‘합의, 계약, 연합’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합의의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ἵνα … εἰς τὴν περιτομήν이다. 즉 바울은 9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선교적으로 합의한 사항, 즉 사도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기로 한 것을 기술한다. ἵνα 문장에 본동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동사 없이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만 문장을 마치면 이것이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기원문’에서처럼 본동사가 없어도 이해되는 문장이라면 본동사 없이 그냥 해석해도 되지만, 이 경우는 아예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기에 예외적으로 ‘가다’라는 단어를 보충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개역개정』을 비롯해서 여러 외국 번역본들 역시 ‘가다’(또는 ‘선포하다’ [LUT])를 보충하여 번역하고 있다.

이것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7 오히려 그들이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은 것은 마치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그것을 맡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을 때,

8 -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할례자들의 사도직을 맡도록 일하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

9 그리고 그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을 때, 기둥처럼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나와 바나바에게 연합의 악수를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게 하기 위함이다.

10절에서는 그들과의 또 다른 합의 사항을 즉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있다. 10절은 μόνον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6절에서 밝힌 οὐδὲν προσανέθειντο을 다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방 선교사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의무 조항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하나만 그들이 행해야

32) F. Musser, *Der Galaterbrief* (Freiburg; Basel; Wien: Herder, 1974), 121.

하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오른손을 줌으로 확인한 ‘연합’의 표시인 것이다. *μνημονεύωμεν*은 가정법이기에 ‘요청’, ‘훈계’, ‘권고’의 의미를 넣어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탁’이라는 번역(『개역개정』)은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그리스어 성서는 10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0 μόνον τῶν πτωχῶν ἵνα μνημονεύωμεν, ὃ καὶ ἐσπούδασα αὐτὸ τοῦτο ποιῆσαι.

이것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0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할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것은 나도 힘써 행하던 것이다.

3. 나오는 말

번역이 단순히 다른 언어의 글을 또 다른 언어로 옮기는 차원의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그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그리고 사상적 차이를 극복하고 원 저자의 글을 오차 없이 번역한다는 것은 클라이버(Klaiber)가 언명한 것처럼 “불가능한 일”³³⁾이다. 그러므로 번역은 자신의 번역이 ‘오역’일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시작하는 작업이며, 이러한 많은 차이들을 학문적인 접근과 연구를 통하여 좁히려는 애씀이 바로 번역이 주는 학문적 매력이 아닌가 생각한다.³⁴⁾

본 연구에서는 갈라디아서 1:1-2:10까지의 성서 원문에 접근하기 위하여 그리스어 문법과 당시의 문학 표현 그리고 다른 언어의 번역본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그리하여 그리스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찾아 그 의미를 가능한 살려서 번역하려 하였고(갈 1:1 ἐγείραντος; 갈 1:11 παρά), 또 때로는 원문에 있는 것을 생략(갈 1:2 σὺν ἔμοι; 2:1 Ἔπειτα)하거나 반대로 첨가하는 문제(“...편지하노니” 『새번역』 갈 1:2; “그리스도께서” 『개역개정』 1:4), 동일한 번역본 안에서의 통일성 문제(갈 1:1 등), 오역의 문제(갈 1:4 αὐτὸν), 태의 문제(갈 2:3), 능동태와 수동태의 문제(갈 2:6 προσανατίθημι) 그리고 문장 구조(갈 1:7; 2:7-9)에 이르기까지 여러

33) W. Klaiber, “(Bibel-) Übersetzen - eine unmögliche Aufgabe?”, *Theologische Literaturzeitung*, 133 (2008), 468-492.

34) 성서번역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는 이상훈, “성서번역을 위한 해석학적 긴장 문제”, 『성경원문 연구』 2 (1998:2), 7-18을 참조하라.

가지 번역의 어려움들을 다루며 각각을 위한 새로운 번역의 제안들을 나름의 원칙에 의거하여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한글 성서 번역본들 또한 각각의 목적과 번역 원칙(‘형식일치의 번역’, ‘내용동등성 번역 원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번역하였다. 그러나 그 어떠한 원칙도 완벽할 수 없으며,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어떠한 번역도 완벽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번역의 시도가 그리스어를 모르는 독자들도 성서의 원문을 가능한 문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원문에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의 신학을 연구함에 초석(礎石)이 되길 바란다.

<주요어>(Keywords)

갈라디아서, 갈 1:1-10, 갈 2:10, ἐγείρω, ἀνάστασις

Galatians, Gal 1:1-10, Gal 2:10, ἐγείρω, ἀνάστασις

(투고 일자: 2011. 7. 16, 심사 일자: 2011. 8. 22, 게재 확정 일자: 2011. 9. 22.)

<참고문헌>(References)

- Novum Testamentum Graec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898/1998.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 LUO Luther Bibe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12.
- EIN Einheitsübersetzung, Stuttgart: Katholische Bibelaustalt GmbH, 1980.
- ELB Elberfelder Bibel, Wuppertal, Zürich: R. Brockhaus Verlag, 1992.
- KJV The King James Version, New York: Thomas Nelson Publishers, 1611/1769.
- NAS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w York: Thomas Nelson Publishers, 1971.
-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International Bible Society, Zondervan Bible Publishers, 1978.
- NJB The New Jerusalem Bibl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NRS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9.
- 권연경, “갈라디아서 3장 18절의 *keca, ristai* 번역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17(2005:10), 25-44.
- 이상훈, “성서번역을 위한 해석학적 긴장 문제”, 『성경원문연구』 2 (1998:2), 7-18.
- 박익수, 『바울의 서신들과 신학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78.
- 벳츠, H. D., 『갈라디아서』, 국제성서주석 37, 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 Bauer, W.,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 Berlin: Walter de Gruyter, 1988.
- Blass, F., Debrunner, A., and W., Rehkopf, F., *Grammatik zum Neuen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 Klaiber, W., (Bibel-) Übersetzen - eine unmögliche Aufgabe?, *Theologische Literaturzeitung*, 133 (2008), 468-492.
- Kremmer, J., *Exeget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I*, Stuttgart; Berlin; Köln: Kohlhammer, 1992.
- Mussner, F., *Der Galaterbrief*, Freiburg; Basel; Wien: Herder, 1973.
- Oepke, A., ἐγείρω, ThWNT II, 333.

Oepke, A., ἀνίστημι ThWNT I, 369.

Oepke, A., *Der Brief des Paulus an die Galater*, Berlin: Evangelische Veranstalt, 1957.

Pridik, K.H., *Exget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I*, Stuttgart; Berlin; Köln: Kohlhammer, 1992.

Schlier, H., *Der Brief an die Galater*,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

Lührmann, D., *Der Brief an die Galater*, Zuerich: Theologischer Verlag, 1978.

<Abstract>

Übersetzung vom Galater 1:1-2:10

Dr. Chung Yeon Kim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Diese Forschung geht es um die Übersetzungsprobleme vom Gal 1:1-2:10. Paulus benutzt im Gal 1:1 das Wort ἐγείραντος (Partizip vom ἐγείρω). Das griechische Wort bedeutet 'erwecken', 'aufwecken'.

Aber das Wort wird in der koreanischen Übersetzung 'leben' übersetzt. Aber Paulus benutzt dafür die anderen Wörter. Z.B: ζωοποιέω, ζάω.

Paulus schreibt sehr oft in seinen Briefen diese drei griechischen Wörter ζωοποιέω (lebendig machen), ζάω (leben) und ἐγείρω (erwecken) unterschiedlich. Aber der paulinische Unterschied wird oft in der koreanischen Übersetzung nicht beachtet: Die drei Wörter werden gleich übersetzt zu dem Wort 'leben'. Wenn diese Übersetzung 'semantisch' und 'im Kontext' richtig wäre, aber wäre 'in der zeitgenössischen literarischen Ausdruck' nicht entsprechend.

Ausserdem enthält diese Forschung die Alternative zur Lösung der Fragen nach σὺν ἔμοι ('mit mir' v.2), Grüß (v.2), und ἑαυτόν ('selbst' v.4) und die Ergänzungsprobleme von εἶη und ἐστίν (v.3, v.5), und vom Gal 2:6.

Dazu kommt noch das Übersetzungsproblem ἕτερον εὐαγγέλιον ('anderes Evangelium' v.7), die Partizipien οἱ ταρασσοντες und θέλοντες ('die Verwirrenden und die Verfälschenden' v.7) und das Problem der Präpositionen παρ' ὃ εὐηγγελισάμεθα ('an Stelle dessen', 'entgegen' v.8), παρ' ὃ παρελάβετε (v.9), κατὰ ('nach' v.11) und ἐν ἔμοι ('in' oder 'zu' v.16). Schließlich werden Genusfrage vom ἠναγκάσθη ('wurde gezwungen' 2:3) und die Frage nach dem Satzstruktur vom Gal 2:7-9 behandelt.